

腎臟生理의 유기적 통일성과 그 病候에 관한 고찰

서만완 · 김길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초록】 한의학은 유기체의 관점에서 생체기능의 통일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생체기능의 유기적 통일성은 氣運과 이치로 인식되며, 經絡은 氣血의 매개를 통하여 臟腑·조직·기관의 사이를 밀접하게 연계하여 유기체에 대한 生理·病理의 보다 완전한 인식과 辨證論治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에 근거하여 腎臟생리의 유기성과 그 病候를 經氣의 交通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足少陰腎經의 經氣交通은 腎臟과 肝·肺·心·膀胱 및 喉嚨·舌本·胸部·足心·股內後廉·髀의 形體組織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여 協助·統一의 생리를 발휘하고, 병리적으로 腎臟의 病變·病候에 대한 유기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腎臟과 그 經絡의 동시적 인식은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실재에 부합되는 辨證論治의 관건이 된다고 思料된다.

중심내용: 유기체, 생체기능의 유기적 통일성, 足少陰腎經, 經氣交通, 신장생리

I. 緒 論

한의학의 생명관은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조화를 이룬 유기체의 관점과 공간적, 시간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天人相應'의 학술관점이 보편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인체의 유기성은 陰陽論의 相反相成과 五行論의 生克·歸類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제의 이성적 인식은 經絡의 聯絡·聯合作用에 기초하고 있다. 經絡은 氣를 매개로 인체 각 장부조직을 밀접하게 연계하므로써 생체기능의 유기적 통일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연과 인체의 氣의 相交를 유지하는 생리체계이다¹⁾. 따라

서 한의학의 생리·병리 및 진단·치료에 있어서 氣의 흐름을 조절·제어하는 經絡은 간과될 수 없으며, 생명현상의 발현처인 臟腑와 이를 전달 매개하는 經絡의 결합은 인체 유기체에 대한 生理·病理의 보다 완전한 인식과 辨證論治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靈樞·本輸篇』에서는 “腎合膀胱 膀胱者 津液之府也 少陽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臟 三焦者中瀆之府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腑也”²⁾라하여 腎이 膀胱과 相合하고 肺, 三焦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고 있다. 또 『素問·水熱穴論』에 “腎者至陰也 至陰者溼水也 肺者太陰也 皆積水也 少陰者 冬孫也 故其

1) 牛兵占·陳志强·徐樹楠·曹風, 黃帝內經,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45, 91. 靈經別篇 “十二經脈者 此五臟六腑之所以應天道也”. 靈樞·海論, “夫十二經脈者 內屬於臟腑 外絡于肢節”

2) 黃帝內經, 위의 책, p.9.

本在腎 其末在肺³⁾라 하여 浮腫, 小便不利 등의 水病이 腎과 肺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장부가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의존의 관계로 어떤 목적의 생리활동을 유지하고, 병리적으로도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臟腑와 經絡의 밀접한 연계에 의한 생체기능의 유기적 통일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靈樞·經脈篇』에 제시된 足少陰經의 經氣交通과 그 經絡病變(是動則病·是主腎所生病)의 病候를 중심으로 腎臟生理의 유기적 통일성과 그 病變을 고찰하여 지견을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足少陰腎經의 經氣交通과 생리·병리

인체의 장부는 유기체로서 經絡의 밀접한 연계에 의하여 상호 協助, 統一의 생리활동을 유지한다. 생리적으로 經脈의 外行線은 체표의 일정한 순행부위가 있고 內行線은 일정한 臟腑를 속락한다. 또 병리적으로 臟腑經絡의 병변은 해당 經脈이 지나가는 곳에 병리성 변동을 일으켜 症狀과 體徵을 나타나낸다.

『靈樞·經脈篇』의 足少陰經脈의 經氣循行⁴⁾에 근거하면 腎臟機能의 유기적 통일성은 “屬腎絡膀胱”의 經氣連絡을 통하여 腎과 膀胱의 표리를 형성하고, 생리적으로 腎은 膀胱의 開闔을 조절하여 尿의 저장과 배설에 관여한다. 또 “從腎上貫肝”의 經氣循行은 肝腎同源(乙癸同源)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또 “入肺中”하는 經氣의 순행은 腎陰이 肺陰을 滋養하고 호흡작용에 있어 ‘肺主出氣 腎主納氣’의 金水相生의 생리를 인식하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絡心”

의 연계는 心腎相交 즉 ‘水火既濟’의 생리를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이처럼 腎經은 經氣의 交通에 의하여 膀胱, 肝, 肺 및 心과 밀접한 관계로 상호 협조하여 일정한 생리를 발휘한다. 다음은 足少陰經의 經氣交通에 의한 臟腑, 조직, 기관의 생리병리적 상관성이다.

1) 腎과 肝의 相聯⁵⁾

腎과 肝의 상연관계는 다음의 생리와 병리적 인식의 근거가 된다.

(1) 肝腎同源(精血同源, 乙癸同源)의 인식

腎經의 經氣는 위로 肝을 통과하므로써 肝陰과 腎陰은 相互 滋生하고 制約의 관계로 陰陽의 상대적 평형을 유지한다. 곧 腎精은 肝陰을 滋養하여 肝陽의 上亢을 억제한다. 병리적으로 腎精의 부족으로 肝陰을 滋養하지 못하면 視物不清의 시력장애를 초래한다. 이는 水能涵木 또는 足少陰腎經의 下生肝木⁶⁾의 이치에 의한 생리와 병리적 내용이다.

(2) 腎主閉藏과 肝主疎泄의 상호협조

腎과 肝의 상연관계는 腎氣의 封藏은 肝氣의 疎泄太過를 조절하고, 肝氣의 疎泄은 腎氣의 과도한 閉藏을 방지하여 상호협조의 생리를 유지한다. 만약 腎과 肝의 기능이 실조되면 여자는 月經先期, 崩漏 혹은 閉經의 증상이 나타나고, 남자는 遺泄 증이 나타나는데, 이는 肝腎의 상호 관계에 의한 생리·병리이다⁷⁾.

2) 腎과 肺의 相聯⁸⁾

(1) 金水相生의 생리·병리

腎經이 肺로 入하는 經氣의 연계는 金은 水를 생하고 水는 金을 滋潤하는 金水相生의 이치로 肺陰과 腎陰의 相互滋生의 관계를 인식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또 腎은 肺가 흡입한

3) 黃帝內經, 위의 책, p.406.

4) 黃帝內經, 위의 책, pp.37~38. 靈樞·經脈篇, “腎足少陰之脈 起於小趾之下 斜走足心 出於然谷之下 循內踝之後 別入跟中 以上臑內 出臑內廉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絡膀胱 其直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扶舌本 其支者 從肺出 絡心 注胸中”

5) 黃帝內經, 위의 책, p.37. 靈樞·經脈篇, “腎足少陰之脈……上貫肝膈”

6) 陳鼎三, 醫學探源, (사천, 四川科學出版社, 1986), p.21.

7) 盛增秀·王琦, 臟象概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70.

8) 黃帝內經, 위의 책, p.37. 靈樞·經脈篇, “腎足少陰之脈……入肺中”

清氣를攝納하는 納氣作用으로 상호 협조하여 呼吸吸入의 정상적 호흡을 유지한다. 이를 肺主出氣 腎主納氣라 한다⁹⁾. 병리적으로는 腎氣虛로 肺氣를攝納하지 못하면 氣喘하고, 腎陰虛로 肺의 絡脈을 손상하면 咳嗽咯血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足少陰腎經의 上濟肺金¹⁰⁾의 이치에 의한 생리와 병리이다.

(2) 수액대사의 생리·병리

또한 腎과 肺는 상호 협조하여 수액대사에 있어서 일정한 조절작용을 발휘한다. 즉 대사후의 노폐물은 肺氣의 肅降作用에 의하여 膀胱으로 보내어지고, 이는 腎陽의 氣化作用에 의하여 체외로 배출된다. 병리적으로도 상호 밀접한 연계에 있음을 『素問·水熱穴論』에서 “其本在腎 其末在肺”¹¹⁾라 水病의 본은 腎, 末은 肺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3) 腎과 心의 相聯¹²⁾

足少陰腎經은 心을 연락하여 心腎相交의 생리와 心腎不交의 병변에 영향을 미친다. 즉 腎의 腎水是 少陰火의 溫養을 얻어 腎이 寒氣에 상하지 않고 藏精과 主水의 생리를 발휘하게 된다. 또 腎精은 心血을 滋養하여 心神을 자양하여 神志活動을 조절한다¹³⁾. 이러한 少陰經의 寒熱相濟(水火既濟)에 의한 心腎相交의 생리는 腎經의 經氣가 心을 연계하는데 기인한다. 병리적으로 腎陰虛로 心火를 上濟하지 못하면 心慌·空虛感, 心悸, 恐懼不安의 증상이 나타나고, 腎精이 心神을 滋養하지 못하면 神疲嗜睡의 증이 나타난다. 이것이 腎經이 心을 연계하므로서 인

한 心腎相交(水火既濟)의 생리·병리이다.

4) 腎과 膀胱의 相聯¹⁴⁾

腎經은 膀胱을 연락하여 腎合膀胱의 표리를 구축한다. 이러한 연계는 노폐물의 배설에 대하여 생리적으로 상호 협조하고 병리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 즉 腎은 膀胱寒水の 氣化開關을 주도하여 肺氣의 肅降作用에 의하여 방광에 모인 소변의 저장과 배설을 조절한다. 이것이 腎主水의 생리이다. 병리적으로 腎氣虛로 방광의 氣化開關에 이상이 초래되면 小便不利와 小便不禁의 병증이 초래된다.

5) 經脈所過處¹⁵⁾

腎經은 또한 장부이외에 조직·기관과의 상호 연계로 신장기능활동의 상태를 반영한다. 이는 臟象學의 본질에 근거한 생리적 병리적 인식의 기초이론이다.

(1) 循喉嚨·挾舌本·注胸中

腎經의 經氣는 인후와 혀를 지나고 흉중으로 들어가므로 腎精이 위로 心肺를 滋潤하지 못하여 虛火가 上炎하면 口熱·舌乾·咽喉腫痛·上氣·咽乾·煩心·心痛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程¹⁶⁾은 少陰經症의 口燥咽乾而渴이 傳經少陰證에 속하는 이유를 少陰之脈이 循喉嚨 挾舌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 走足心·股內後廉·貫脊

經氣의 濡養失調와 厥逆으로 脊股內後廉痛, 足部癱軟而厥冷, 足下熱而痛의 증상이 나타난다.

6) 기타

腎은 脾·胃와 유기적인 연계¹⁷⁾로 상호 협조

9) 林佩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97. 喘症論治, “肺爲氣之主 腎爲氣之根 肺主出氣 腎主納氣 陰陽相交 呼吸乃和”

10) 醫學探源, 위의 책, p.21.

11) 黃帝內經, 위의 책, p.406. 素問·水熱穴論, “腎者至陰也 至陰者盛水也 肺者太陰也 皆積水也 少陰者 冬脈也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12) 黃帝內經, 위의 책, pp.37~38. 靈樞·經脈篇, “腎足少陰之脈……絡心”

13) 傅山, 傅青主男女科,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虛勞門·心腎不交, “腎無心之火則水寒 心無腎之水則火熾 心必得腎水以滋潤 腎必得心火以溫煖”

14) 黃帝內經, 위의 책, p.37. 靈樞·經脈篇, “腎足少陰之脈……絡膀胱”

15) 黃帝內經, 위의 책, pp.37~38.

16) 程國彭, 醫學心悟,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6), p.64.

17) 黃帝內經, 위의 책, p.406. 素問·五臟生成篇,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 素問·水熱穴論, “腎者胃之關也 關門不利 故取水而從其類也”

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 脾는 腎陽의 溫煦作用에 의하여 소화기능을 유지하고 水濕을 運化하며, 병리적으로 腎陽의 不足은 脾運의 運化에 영향을 미쳐 脾腎陽虛의 病變을 초래하여 食少, 腹脹, 久瀉不止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腎精은 脾가 運化한 水穀精微로 인하여 부단히 보충되고 化生되어 성장과 발육의 생리기능을 발휘한다¹⁸⁾. 또한 腎은 胃之關으로 二陰과 二便을 主司하여 水穀을 배출하고 關門의 기능이 실조되면 수액대사에 이상을 초래한다¹⁹⁾. 이는 腎과 脾·胃의 相聯에 의한 생리·병리적 내용이다.

2. 足少陰經脈의 病候

足少陰經의 病후²⁰⁾는 腎經의 經氣변동에 의한 '是動則病'과 신장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是主腎所生病'으로 개괄되며, 그 病候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經絡病症候 및 分析²¹⁾

足少陰腎經의 經絡病의 症候는 陰虛로 相火가 內動하여 本經 經氣의 厥逆을 초래하고, 또 유관된 臟의 氣機逆亂을 일으켜 "骨厥"의 증상을 야기시킨다. 腎은 "先天之本"으로 그것이 저장하는 精氣는 腎陰, 腎陽의 두 방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本經 經氣의 厥逆은 반드시 腎氣의 衰微를 유발시킨다. 腎陰과 腎陽이 모두 虛하여 상관 臟氣의 평형상태가 실조되면 다음과 같은 병리변화가 나타난다. 腎氣가 쇠미해지면 虛火가 위로 떠다니기 때문에 환자가 飢餓感을 느끼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腎經의 直行하는 脈이 위로 肝臟을 통과하기 때문에 腎精不足은 肝陰의 不足에도 영향을 끼치고, 肝은 또 눈에 영향을 끼쳐 눈이 침침해지고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증상이 출현한다. 肝臟을 통과한 腎經은 肺로

들어가므로 腎氣가 虛하면 肺氣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숨을 크게 헐떡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陰虛火旺으로 肺絡을 손상시키면 기침과 咯血을 불러 일으킨다. 腎經이 肺臟으로부터 나와 다시 心臟을 연락하기 때문에 腎陰이 虛하게 되면 心火를 上濟하지 못하여 心腎不交의 증상, 즉 心慌·空虛感, 心悸·공포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후의 종합적인 표현을 "骨厥"이라 칭한다.

2) 臟腑病症候 및 分析²²⁾

足少陰腎經의 病變은 신장 본래의 기능변화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腎이 藏精하지 못하여 陰精이 능히 肺, 心을 滋養하지 못하면 虛火가 왕성한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입이 타고, 혀가 마르며, 인후가 붓고 氣逆이 발생하고, 목구멍이 건조하고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다. 임상에서는 滋陰降火의 치료방법을 응용하여 이러한 증후에 적용한다. 腎氣가 虛하면 封藏·固攝과 開關작용의 실조로 前後二陰의 배설기능을 제약할 수가 없어 발 부위가 위축되고 차가워지며, 피로하여 쉽게 잠이 오는 증상이 나타난다. 經脈이 지나가는 부위의 척추, 넓적다리 안쪽의 뒤쪽에 통증이 있고, 足下에 열과 통증이 생기며, 腸澼, 泄瀉, 小便不禁, 陰黃 등의 병증이 나타난다. 임상에서 살펴본다면, 大便溏瀉는 腎陰이 虛한 것이고 大便秘結(변비)은 腎陽이 虛한 것이다.

3. 腎病의 辨證과 病候 인식의 유기성

위의 經絡病症候와 臟腑病症候의 분석에 기초하여 腎臟病을 臟腑와 經絡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辨證하고 그 病候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 臟象概說, 위의 책, p.69.

19) 黃帝內經, 위의 책, p.407.

20) 黃帝內經, 앞의 책, p.38. 靈樞·經脈篇, "是動則病飢不欲食 面如漆柴 咳唾則有血 喝喝而喘 坐而欲起 目眩 睛如無所見 心如懸若飢狀 氣不足則善恐 心惕惕如人將捕之 是爲骨厥 是主腎所生病者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噎乾及痛 煩心 心痛 黃疸 腸澼 脊股內後廉痛 痿厥 嗜臥 足下熱而痛"

21)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廈門大學出版社, 1989), p.79.

22) 劉孔藤, 앞의 책, pp.79~80.

1) 辨證

腎臟의 病症은 少陰氣化의 寒化證과 熱化證으로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데, 이를 腎의 생리특성에 의하여 설명하면 寒化證은 腎氣虛와 腎陽虛로 구분되고, 熱化證은 腎陰虛와 陰虛火動의 證候로 나타난다. 그 病機는 少陰의 火氣가 偏盛하면 腎水가 少陰君火를 따라 熱化하려는 氣化가 太過하여 腎精을 耗損하므로 腎陰虛하게 되고, 심하면 陰虛하여 火動하는 병태가 유발된다. 반대로 少陰의 君火가 偏衰하여 腎水の 熱化하려는 氣化가 不及하면 腎氣虛의 病태가 나타나고 腎氣虛가 진행되면 腎水가 少陰君火의 溫養을 받지 못하므로써 腎陽虛의 病태가 유발된다.

2) 病候

病候는 少陰心腎기능의 실조로 腎藏精과 腎主水の 생리실조가 腎臟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는 經絡·組織·器官의 기능이상으로 반영되며, 그 病變의 특성은 腎陰과 腎陽의 속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腎臟의 병후²³⁾

腎陰虛로 腦髓를 자양하지 못하면 頭暈, 耳鳴, 耳聾, 健忘, 失眠하고; 骨을 영양하지 못하면 腰膝無力, 腰脊痠軟의 증상이 나타난다. 陰虛로 火動하면 五心煩熱, 顫紅, 咽乾, 盜汗, 遺精, 早泄 등증이 발현된다.

腎氣虛로 封藏과 固攝의 작용이 실조되면 腎精을 固攝하지 못하여 遺精, 早泄의 증상이 나타나고, 膀胱의 氣化開闔에 영향을 미치면 尿少·尿閉·浮腫의 소변불리와 尿頻·遺尿의 小便失禁證이 나타난다. 또 善恐(心惕如人將捕之), 嗜臥, 腸澀(久痢로 腎氣虛로 인한 것이며 陽明經의 濕熱로 인한 이질과 감별하여야 함)의 증상이 있다. 腎陽虛로 陽氣가 外達하지 못하면 腎氣虛의 병증외에 形寒肢冷, 腰膝冷感의 寒象과 陽萎症이 나타난다. 또 陽虛로 寒濕의 울체하여 陰黃

이 나타나기도 하며, 脾胃를 溫養하지 못하면 食少便溏, 五更泄瀉등의 脾胃陽虛證이 발생한다.

(2) 經絡의 病候

少陰腎經의 經絡病候는 '是動則病'과 '是主腎所生病'의 증상으로 개괄된다. 그 病候를 분석하면 腎陰虛로 肝陰을 滋養하지 못하면 視物不明하고; 陰虛로 虛火上炎하면 口熱, 舌乾, 咽腫, 咽乾而痛, 煩心, 心痛이 있고, 虛火가 肺絡을 손상하면 咳嗽咯血을 일으킨다. 또 腎陰虛로 위로 心火를 上濟하지 못하면 心慌·空虛感, 心悸, 恐懼不安하게 된다. 腎陽虛의 경우에는 飢不欲食, 面黑의 증상이 나타나고; 腎氣虛로 肺氣를 攝納하지 못하면 喘息氣短, 呼多吸少의 腎不納氣의 증상과; 經氣의 厥逆으로 腎經이 지나 는 부위인 足部の 痿軟厥冷, 脊股內後廉痛 및 足心熱而痛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腎臟의 病候의 인식은 足少陰腎經의 溫陽(溫補腎陽·溫運脾胃·溫陽利水·溫腎納氣), 養腎陰(滋陰降火·寧心安神·調經止帶) 및 通經活絡의 효능²⁴⁾으로 볼 때 임상적 실재와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少陰經의 經絡病症과 傷寒論의 少陰病脈證의 비교

少陰經은 手少陰心經과 足少陰腎經을 포괄한다. 소이 少陰은 心腎을 統攝하고 水火를 主司한다. 따라서 少陰經의 病證은 본질적으로 心腎機能의 이상에 의한 질환을 지칭한다. 여기서 心은 火를 상징하고 腎은 水를 상징하는데, 經絡의 屬絡을 통하여 水火가 相濟하고 陰陽이 上下로 交通하여 인체의 陰陽平衡을 유지하는 關鍵이 된다. 만약 少陰에 病이 발생하면 心腎의 水火陰陽의 실조로 陰陽의 偏盛과 偏衰에 의한 병리변화가 나타난다. 즉 少陰氣化의 특성에 따라 陽盛則熱, 陰盛則寒에 의하여 火衰의 陽虛寒化와 水虛의 陰虛熱化의 病機를 나타낸다²⁵⁾.

23) 李吉祥, 臟腑經絡遺方用藥, (北京, 中國中醫出版社, 1994), pp.79~81.

24) 余仲權·林建華, 經穴辨證運用學, (四川,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9), p. 210.

25) 崔月犁, 傷寒論, (北京, 春秋出版社, 1988), p.126.

표 1. 足少陰經의 經氣交通에 의한 生理·病理의 인식

구 분		經氣交通과 생리·병리						
經脈의 所過處		通過肝臟 (上貫肝)	入肺中	聯絡心臟 (絡心)	聯絡膀胱 (絡膀胱)	屬腎	循喉嚨 挾舌本 注胸中	走足心 股內 後廉 貫脊
생리		乙癸同源	金水相生	水火既濟 心腎相交	腎合膀胱	本臟	腎의 臟象系統	
병 변	經脈	目眩暈	咳唾則有血 噦噦而喘	心如懸若飢 狀·善恐·心惕 惕如人將捕		·善恐·心悸 面黑· 嗜臥·黃疸·腸澼· 口熱·舌乾 咽腫· 上氣·噎乾及痛· 煩心·心痛	舌乾·咽腫· 上氣·噎乾及 痛·煩心·心 痛	脊股內後廉 痛·痿厥·足 下熱而痛
	絡脈				實則閉塞			虛則腰痛
病 機		腎精不足 → 肝陰不足	·陰虛火旺 → 損傷肺絡 ·腎虛不納氣	腎陰虛 → 不能上濟心火	腎氣虛 → 開闔不利	·腎氣虛 ·腎陰虛 → 心火偏盛 ·虛火 炎上	·腎陰虛 → 心 火偏盛 ·虛火 炎上	經氣厥逆

한편 『傷寒論』의 少陰病은 일반적으로 心腎 陽虛의 全身虛寒證이 위주가 된다. 그러나 少陰 病은 陽虛 또는 陽氣의 손상으로 火衰하여 陰 이 寒으로 전화하는 陽虛의 寒化證과 熱邪가 陰을 손상하므로써 水虛하면 陽이 熱로 전화하 는 陰虛의 熱化證이 있다. 少陰寒化證은 陽氣가 이미 쇠약해져 無熱惡寒, 脈微細, 但欲寐, 四肢 厥冷, 下利清穀의 증상을 위주로 하는 少陰의 本證으로 少陰病의 주요 病變이고, 少陰熱化證 은 腎陰이 손상되고 心火가 偏勝하므로써 虛熱 이 內生하여 心煩, 自利而渴, 咽痛, 吐利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陰虛內熱에 속한다(26)27).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에 의하면 少陰脈은 “貫腎絡于肺 系舌本”하므로 少陰病에 口燥, 舌 乾 및 渴症이 있다고 하였다. 또 程(28)은 少陰病 의 주요 증상을 口燥咽乾而渴, 或咽痛, 或下利 清水 色純青, 心下硬, 或下痢腸后, 目不明으로 언급하면서, 口燥咽乾而渴과 咽痛의 증상은 足 少陰經이 循喉嚨하고 挾舌本하미 또 인후를 지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少陰病의 주요 증상을 『靈樞·經脈篇』의 少陰經病의 ‘是動病’ 과 ‘所生病’의 병후와 비교하면 少陰病의 但欲 寐는 嗜臥, 心煩은 煩心, 自利而渴은 腸澼 ·舌乾·咽乾, 咽痛은 咽腫·噎乾及痛, 目不明은 目眩暈如無所見의 증상과 일치한다. 그러나 『靈 樞·經脈篇』에서는 脈의 상태에 대한 기술은 없으며 傷寒에서는 기본적으로 病脈을 기술하 고 있다. 따라서 『傷寒論』의 少陰病은 『素問· 熱論』의 外感熱病의 “五日少陰受之 少陰脈貫腎 絡于肺 系舌本 故口燥舌乾而渴”(29)의 傳變規律 과 病症에 기초하여 계통적으로 체계화된 辨證 綱領이며 그 病機는 少陰의 經脈과 心腎의 臟 氣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볼 때 『傷寒論』의 少陰病은 外感熱病의 한 傳變過程이나 病機로서의 의미일 뿐만 아니 라 手少陰과 足少陰의 經絡病變과 心腎의 臟腑 病變을 포괄하므로써 心腎疾患의 病機와 辨證論 治의 강령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6) 朴憲在,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 1985), p.190, 203.

27) 劉渡舟, 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177~178.

28) 醫學心悟, 위의 책, pp.64~65.

29) 黃帝內經, 위의 책, p.328.

표 2. 傷寒論·少陰病의 주요증상¹⁾과 少陰經의 경락병후²⁾의 비교

구분	病 候							
傷寒論 少陰病脈證	脈微細	但欲寐	心煩	自利 下痢腸後	口燥咽乾而渴	小便色白	咽痛	目不明
靈樞 經脈篇		嗜臥	煩心	腸澼	口熱·舌乾·噎乾		咽腫·噎乾 及痛	目眩如無 所見

Ⅲ. 結 論

腎臟生理의 유기적 통일성과 그 병변을 足少陰經의 經氣交通과 病候를 중심으로 고찰한 바 다음의 지견을 얻었다.

腎臟은 足少陰經의 經氣交通에 의하여 肝·肺·心·膀胱 및 喉嚨·舌本·胸部·足心·股內後廉·腰의 形體組織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여 協助 統一의 생리를 발휘하고, 병리적으로 상호 영향한다. 足少陰經絡에 의한 이러한 臟腑·조직·기관의 밀접한 연계는 臟腑論에 의한 腎臟의 생리와 병리의 평면적이고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 유기적 인식을 가능케하므로써 辨證論治의 영역을 확대하는 관건이 된다.

또 傷寒論의 少陰病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의 少陰病을 모태로 발전 체계화되었으며, 外感熱病의 傳變過程이나 病機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少陰의 經絡과 心腎의 기능 실조에 의한 병변을 개괄하고 있다. 따라서 少陰病의 病因, 病機는 少陰經의 經絡病證과 心腎疾患의 辨證論治에도 적용되는 강령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腎臟은 足少陰經絡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生理·病理의 유기적 통일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인식은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실재에 부합되는 辨證論治의 관건이 된다고 思料된다.

Ⅳ. 참고문헌

1. 牛兵占·陳志强·徐樹楠·曹風, 黃帝內經,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2. 陳鼎三, 醫學探源, 사천, 四川科學出版社, 1986.
3. 盛增秀, 王琦, 臟象概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4. 林佩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5. 傅山, 傅青主男女科,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6. 程國彭, 醫學心悟,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6.
7. 李吉祥, 臟腑經絡遺方用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8.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廈門大學出版社, 1989.
9. 余仲權·林建華, 經穴辨證運用學, 四川,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9.
10. 崔月犁, 傷寒論, 北京, 春秋出版社, 1988.
11. 朴憲在,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 1985.
12. 劉渡舟, 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75.

1)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75), p.15 醫學心悟, 위의 책, p.64.

2) 黃帝內經, 위의 책, pp.37~38. “心手少陰之脈……是動則病噎乾 心痛 渴而欲飲 是爲腎厥,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脇痛 臍臂內後廉痛 掌中熱痛”, “腎足少陰之脈……是動則病飢不欲食 面如漆柴 咳唾則有血 噎噎而喘 坐而欲起 目眩如無所見心如懸若飢狀 氣不足則善恐 心惕傷如人將捕之, 是主腎所生病者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噎乾及痛 煩心 心痛 黃疸 腸澼 脊股內後廉痛 癢厥 嗜臥 足下熱而痛”

=Abstract=

A Holistic Study of the Physiology of the Kidney and its Symptom

Man-Wan Suh · Gil-Whon Kim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This paper documents a holistic study of the kidney and its symptom.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organs and its diseases have been studied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necting role of the kidney channel of foot-shaoy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unction of the kidney has specific relations with the liver, lung, heart, urinary bladder, throat, tongue, chest, sole of the foot, inside of the thigh and waist. These mutual relations reflect the pathological changes of the kidney.

So physiological function and symptom of the kidney can be better understood through the connecting role of the kidney channel of foot-shaoyin on the concept of the organism as a whole. This is the key of the clinical treatment based on the precepts of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Kidney, kidney channel of foot-shaoyin, organism as a whole